

월간 내일

주52시간 근무제

희망찬
내일을 향해
늘봄이와
함께 점핑 점핑!



방송인 장성규 인터뷰는
12p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How's Work and
Life Balance?

희망 일터

슬기로운 뉴딜생활
이토록 기다려온
예술인 고용보험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도시 남녀의 워라밸
당신의 휴식은 안녕한가요?



표지이야기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 2021년!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Jump up!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50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Work & Life Balance



04

행복 일터



- 04 Intro**
How's Work and Life Balance?
- 08 Info**
우리는 왜 '워라밸'에 열광할까요?
- 10 Topic**
워라밸이 바꾼 일상 풍경
- 12 People**
워라밸 시대 기업 문화 궁금해?
나 선뎀규가 알려준다규~
- 장성규 방송인
- 16 System**
이제는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실시합니다!
- 20 Plus**
워라밸 시대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하는 법!
- 24 Post**
일과 생활의 균형 잡기
고용노동부가 돕습니다!

희망 일터



- 28 슬기로운 뉴딜생활**
이토록 기다려온 예술인 고용보험
- 이종승 연극배우
극단 경험과 상상·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위원장
- 32 인생 2막**
어린이집 원장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로
제주에서 그린 인생 2막
- 안정향 캘리그래피 작가
- 36 굿&굿 오피스**
심리적 안전감으로
다양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 법무법인(유) 율촌
- 40 청년꿈터**
두려움을 이기고 띄운 새로운 희망
- 조윤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 44 정책이슈**
위기를 넘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5가지 약속
- 48 고용노동 뉴스**



32



56



62

힐링 일터



- 56 미디어 속 노동임기**
도시 남녀의 워라밸
당신의 휴식은 안녕한가요?
- 60 JOB툰**
이제 그만 퇴근하게 해주세요!
- 62 직장탐구생활**
부업으로 해볼 만한 N잡과 사이드 프로젝트
어떤 것이 있을까?
- 64 고민타파**
워라밸이라는 말
저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 68 저녁이 있는 삶**
일상이 권태로운 당신에게 악기 연주를 권함!
- 70 직장인 건강상식**
요즘 운동
#오늘하루운동
- 72 주말에 뭐 할래?**
3월 음반·책·영화 추천
- 78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 82 애독자 모의고사**

How's Work and Life Balance?

✱

삶의 많은 순간 균형감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과 휴식의 경계에서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과로나 태만이 아닌 일과 삶의 적당한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월간내일 3월호에서는 시대의 화두
'워라밸'을 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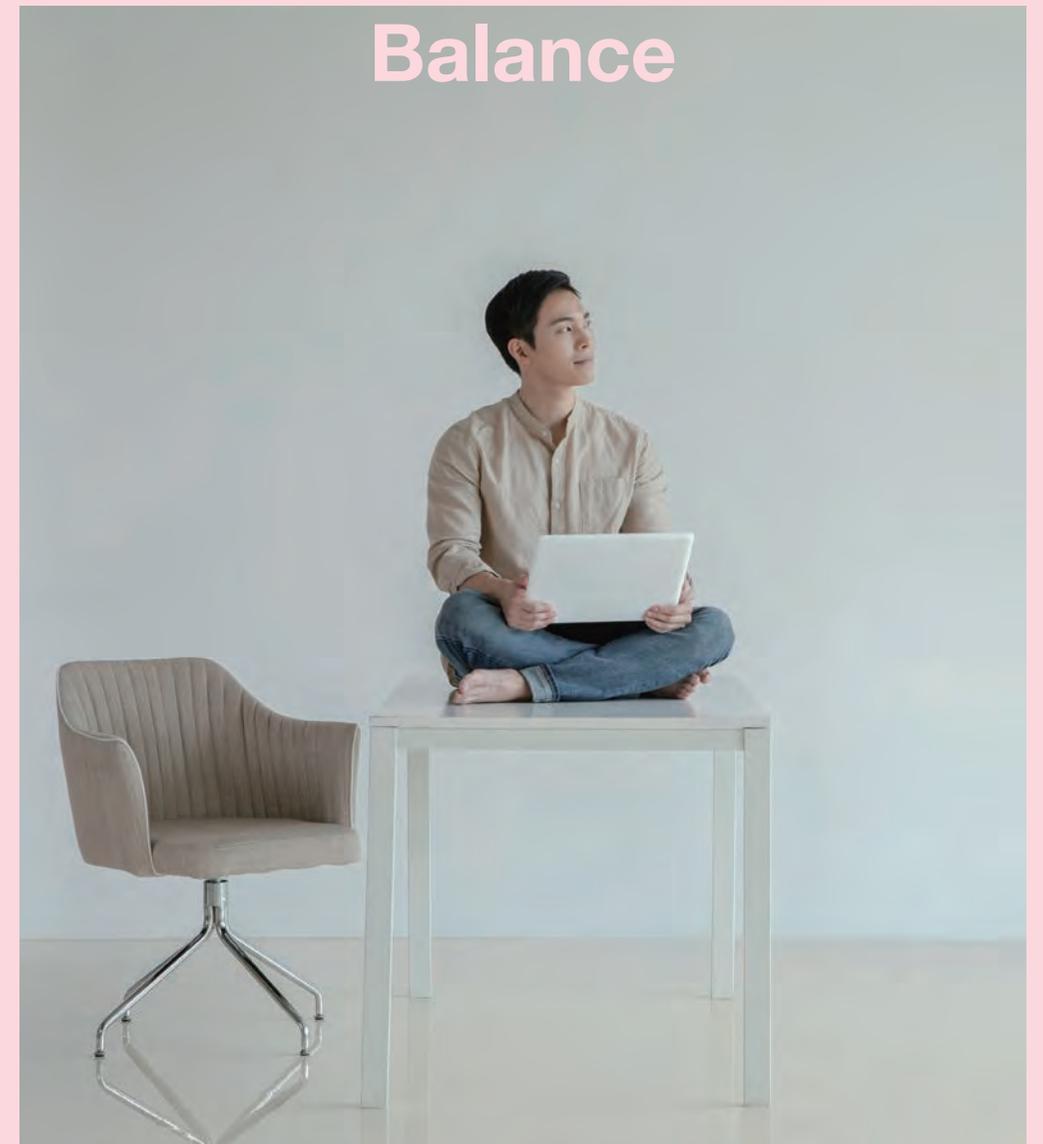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로 일터와 가정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시되던 야근 문화가 차츰 자취를 감추고, 적절한 노동의 시간만큼 일터 밖 일상의 시간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택하는 기업이 늘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든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50~299인 기업, 2021년 하반기부터는 5~49인 기업도 순차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일과 삶의 균형, 즉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는 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의 일터화나 유연한 근무 환경이 모든 이들에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근로자나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주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고민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과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컨설팅,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노사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함께 오래 걷는 내일을 꿈꾸며 준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함께 읽어봅시다.



Work & Life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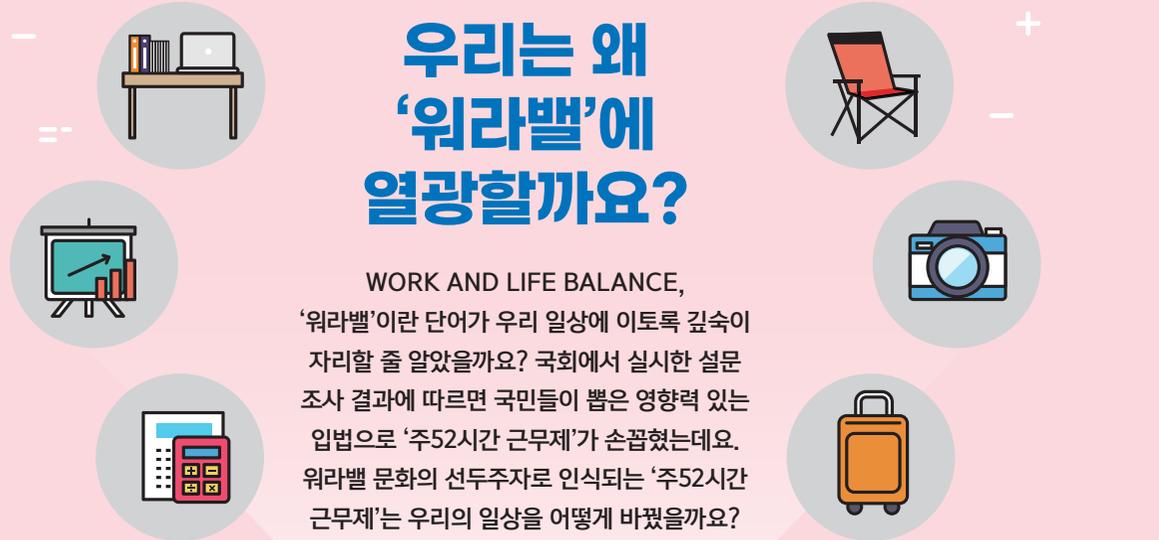


WORK

LIFE

우리는 왜 '워라밸'에 열광할까요?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란 단어가 우리 일상에 이토록 깊숙이 자리할 줄 알았을까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영향력 있는 입법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손꼽혔는데요. 워라밸 문화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는 '주52시간 근무제'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21.7%
3,453표

감정노동자 보호법
21.9%
3,482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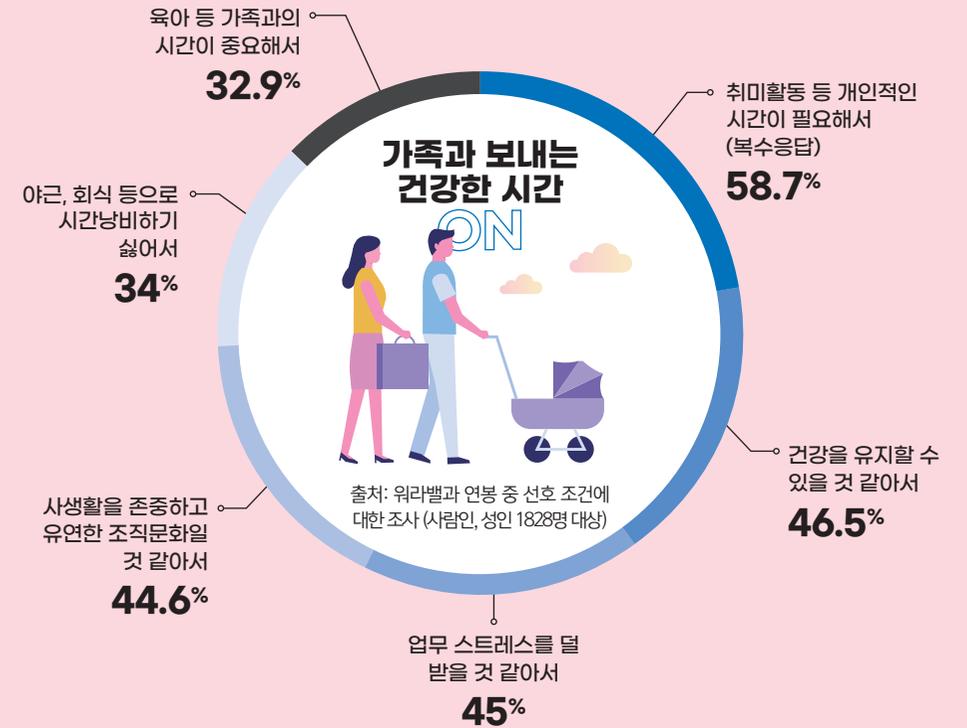
국민이 뽑은 좋은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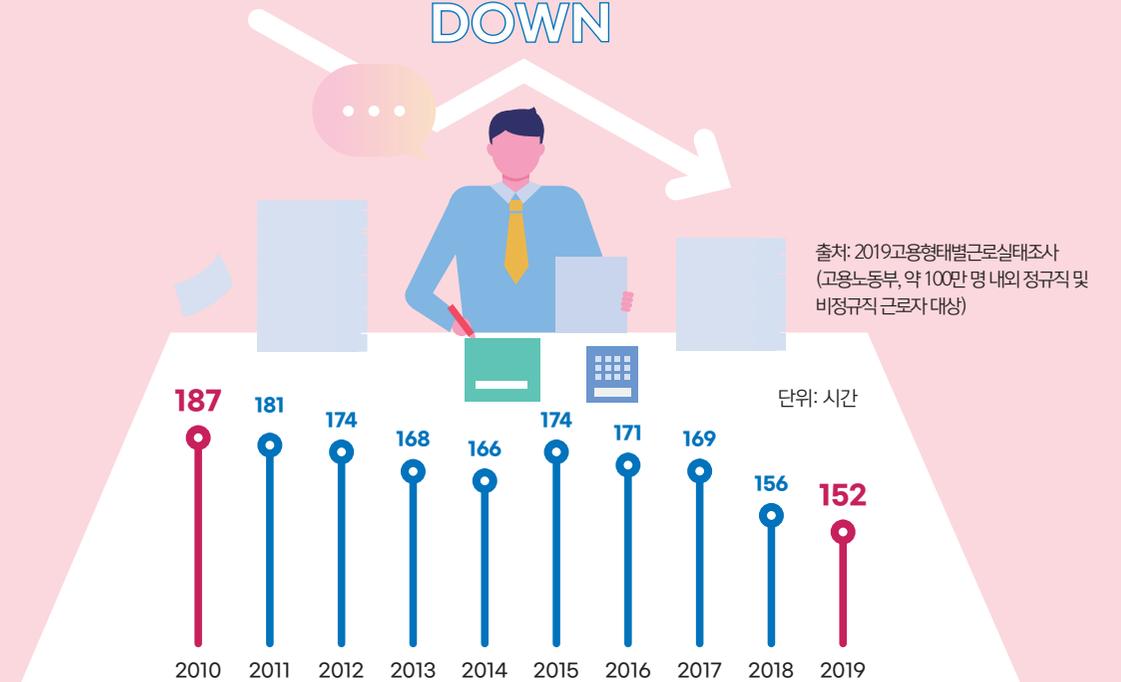
출처: 제20대 국회, 국민이 뽑은 좋은 입법은?
(국회사무처, 국민 1만 5,880명 대상)

디지털성폭력방지법
29.4%
4,664표

근로시간단축법
34.6%
5,495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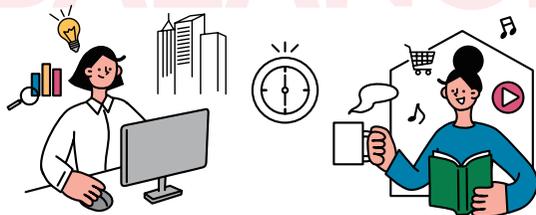


월평균 근로시간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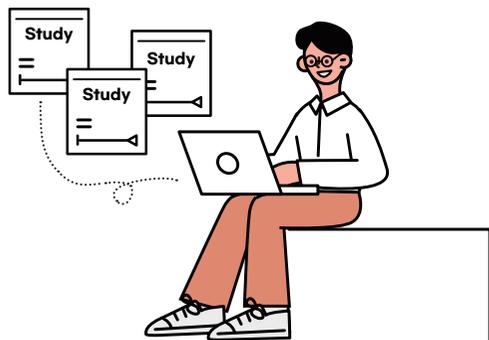


WORK & LIFE BALANCE

워라벨이 바꾼 일상 풍경



워라벨이 바꾼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자기계발도, 휴식도, 취미생활도 더욱 늘어나는 건강한 일상.
주52시간 근무제가 바꾼 우리의 삶의 풍경을 신조어를 통해 들여다 볼까요?



직장인에게도 공부는 필수

퇴튜던트 🔍

워라벨의 영향을 받은 신조어 '퇴튜던트'는 퇴근과 스튜던트(학생)를 결합한 합성어로,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하지 못했던 공부를 퇴근 후 하는 직장인을 일컫습니다. 퇴근 후 약기 연주를 배우기 위한 수업을 듣거나, 영어 회화 과외를 받고 코딩을 독학하는 등.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온오프 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배움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Work)+휴가(Vacation)

워케이션 🔍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사무실이 아닌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서 일도 하고 충분한 휴식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일례로 일본항공(JAL)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워케이션에 해당하는 '텔레워크'를 도입했는데요. 최대 5일까지 휴가지에서 근무해도 정상근무로 인정해주는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미를 내 일같이

하비슈머 🔍

하비슈머(Hobby+Consumer)는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산적인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통계로도 드러났는데요. 모 백화점에 의하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약기나 취미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17% 늘었고, 스포츠 및 취미용품 매출이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하비슈머의 증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워라벨을 넘어 이제는 워라블 시대

워라블 🔍

워라블은 'Work-life blending'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일과 삶을 적절히 혼합함을 뜻합니다. 워라벨과 닮아 보이면서도 다르게 느껴지는 '워라블'은 일과 휴식을 완전히 분리하기보다 일과 삶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죠. 서점에서 책을 읽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워라블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

네스팅족 🔍

보금자리나 안식처를 의미하는 영어 'Nest'에서 유래한 말로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고 집안 가구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주5일제로 인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그간 방치되었던 가정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등장했죠. 네스팅족들은 직장에서 되도록 정시 퇴근하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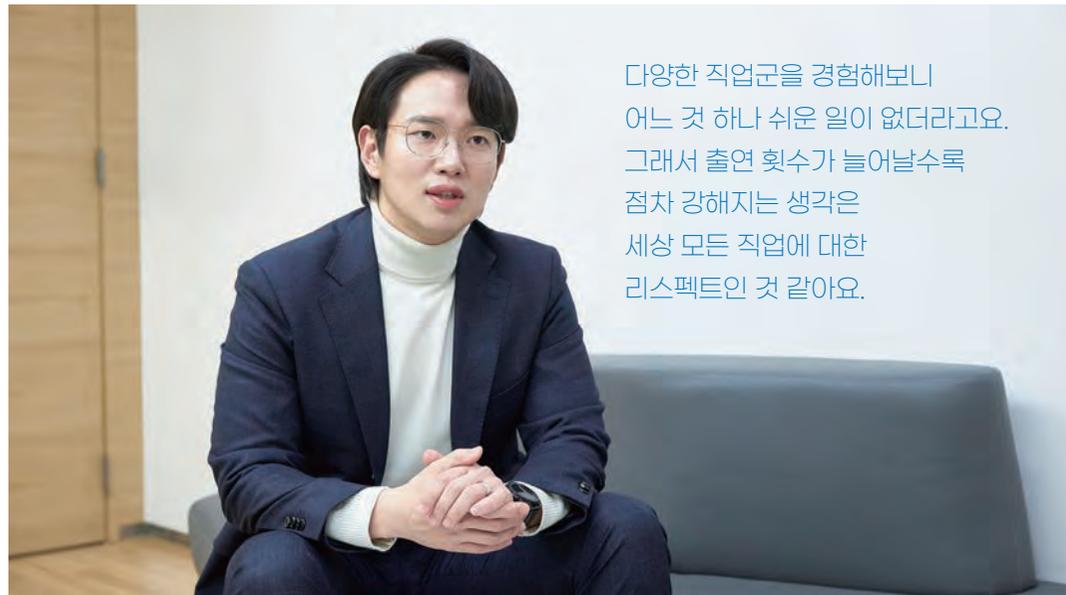
디지털 노마드 🔍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업무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가 쓴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요.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없이 업무를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워라밸 시대 기업 문화 궁금해?

나 선넘규가 알려준다규~

방송인 장성규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보니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강해지는 생각은
세상 모든 직업에 대한
리스펙트인 것 같아요.

선을 자주 넘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선넘규'가 대중에게 전하는 카타르시스 덕분일까요?
그가 전하는 직장 and 직업의 이야기는 오늘도 전국의 375만 구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합니다.
워라밸 시대, 우리가 찾아 헤매는 신의 직장을 그는 과연 찾았을까요?
한없이 가벼운 농담 사이, 묵직한 진심이 묻어나는 방송인. 장성규 씨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Q. 세상의 모든 JOB를 리뷰한다는 모토의 <워크맨>이 몇 년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워크맨 인기의 비결은 뭘가요?

'직업과 일'에 집중한 콘텐츠에 제작진의 기획력이 더해지면서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워크맨만의 독특한 영상 문법이 저의 캐릭터성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고 그 부분을 구독자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Q. 에버랜드-에워드 하우스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해녀, 매니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직업을 체험하는 모습이 대중의 모습에 각인되었어요. 가장 기업에 남은 직업 혹은 직장 체험은 무엇이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하나를 꼽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사실 모든 직업이 다 기억에 남고 특별했는데요. 워크맨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보니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점차 강해지는 생각은 세상 모든 직업에 대한 리스펙트인 것 같아요.



Q_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워크맨> 촬영 마지막에 항상 일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던데,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장 하루 아르바이트로 계산되는 일당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요즘에는 코로나19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도 마음고생을 하는 시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장님들도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Q_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에도 찾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라벨, 연봉, 복지,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촬영한 기업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워라벨 좋은 기업이 있다면요?

기업 콘텐츠는 최근부터 시작한 콘텐츠라 아직 그렇게 많은 기업을 가보진 못했어요. 기억에 남는 워라벨 기업이 있다면

최근 다녀온 '에듀윌'이란 교육기업인데요. 주4일제 근무를 실현한 기업이었어요.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주4일제 근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외에도 삼시세끼를 모두 회사에서 챙겨주는 곳도 기억에 남습니다.

Q_ 주4일제라니 하루빨리 국내에 널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웃음). 기업 콘텐츠는 직업 체험 콘텐츠와는 다르게,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을 가고 있어요. 워크맨 콘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에서도 굉장히 복지제도에 신경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미 많이 알려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워라벨 문화가 우수하고 복지제도가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숨은 알짜 기업들을 잘 찾아서 더 많은 분에게 알리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Q_ 올해 초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21.1.1부터)과 5인 이상 사업장(21.하반기)에도 시행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의 워라벨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워라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스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다 보니 업무량이 들쭉날쭉한 편이고요. 제가 만약 여전히 직장에 속해 있는 직장인이었다면 '주52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워라벨 기업은...

근무제'가 참 반가운 제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 갖지 못했던 업무 외 시간이 물리적으로 확보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코로나19 시국이라는 난제를 잘 해결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Q_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일터에서 나오거나 사업장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사실 '힘내세요'라는 말도 조심스럽고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하는 마음도 들고요.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치는 분들에게 가끔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 뿐이겠죠.

Q_ 2021년 월간내일의 테마는 'Jump Up'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구직자, 자영업자분에게 힘차게 'Jump Up'하자는 의미에서 파이팅해주세요!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전국의 독자분에게 존경과 응원을 건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방송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웃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누구 한 명 낙오되지 않고 모두 함께 Jump Up 하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파이팅!

이제는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실시합니다!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주52시간 근무제가 2021년에는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작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되었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워라벨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변화될 고용노동계의 변화들을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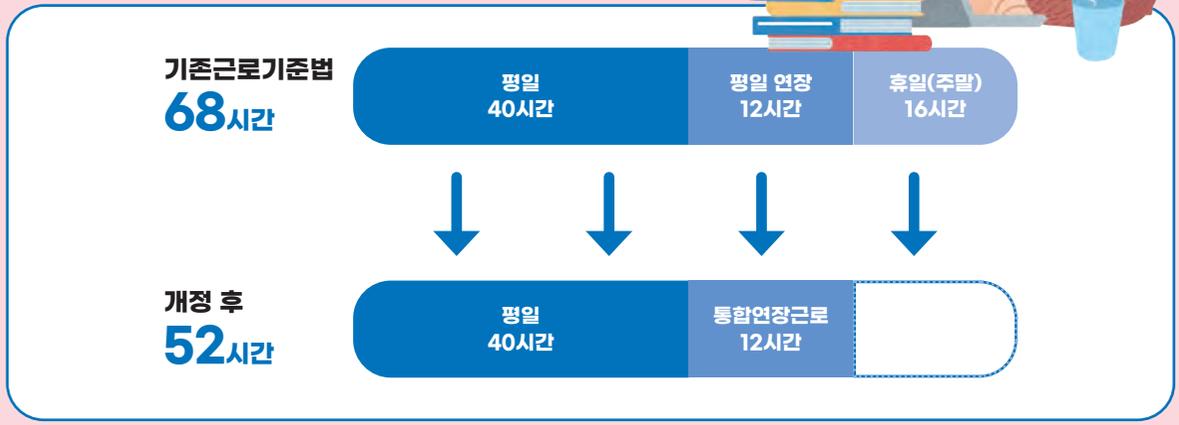
개정 근로기준법의 기본방향은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을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주요 골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시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	시행시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7.1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	2020.1.1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	2021.7.1부터

*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의 시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허용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주 최대 40시간 근로해야 합니다!

성인 근로자의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통상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6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단축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 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5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46시간 * 46시간 = 주 40시간+연장근로 6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40시간 * 40시간 = 주 35시간+연장근로 5시간

근로시간 특례유지업종 외 업종은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특례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고 50인 이상 사업체라면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례유지업종 5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특례제외업종 21개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30~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국가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는데요.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30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죠.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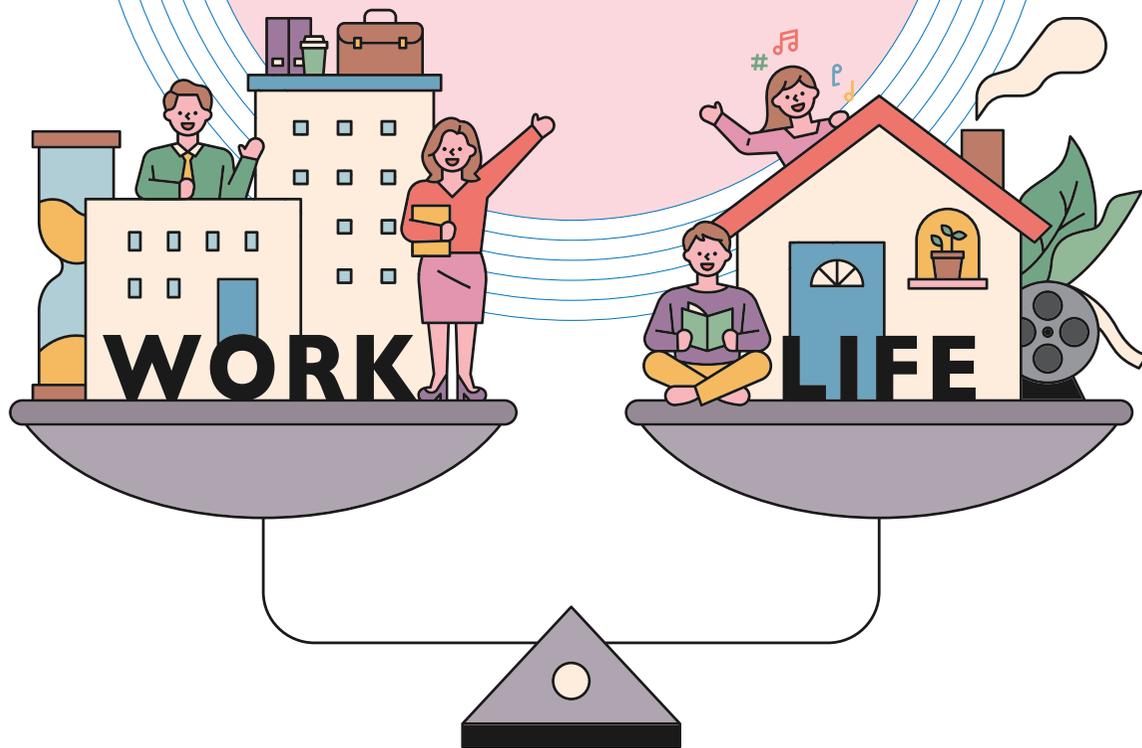
공휴일	일요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한절 제외) 신정·설, 추석 연휴 3일·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어린이날·현충일 15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합니다!

연장근로 가산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 가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을 적용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의 중복 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함
야간근로 가산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은 추가 지급해야 함

워라벨 시대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하는 법!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워라벨이란 단어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추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마세요, 고용노동부가 도와드릴게요!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고민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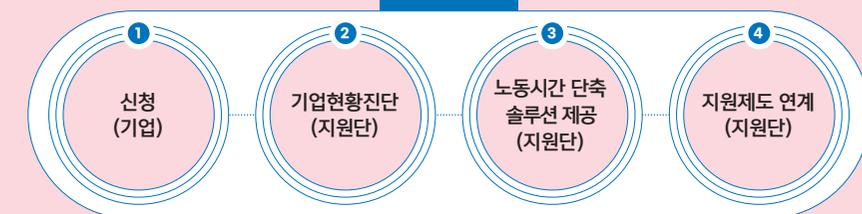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제시합니다.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가 가능하며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과 연계를 돕습니다.

* 신청 :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 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절차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이라면?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 지원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기업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 기간△단축 조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1인당 12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TEL. 044-202-7973)

일터의 혁신이 필요한가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터의 혁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사업주들을 지원하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사업장 희망 분야에 맞는 컨설팅을 10~21주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사업장 지원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는데요. 사업장 여건·도입 의지·수행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 ⑨비정규직 구조개선

*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

*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TEL. 044-202-7593)

일과 생활의 균형 잡기 고용노동부가 돕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달라져야 할까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근무제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의 지원이
궁금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 원	260만 원	10만 원	5만 원

맞습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근무혁신 이행에 따른 지원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구축비용과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재택·원격 근무를 위한
인프라도 지원되나요?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찾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함께 지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에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혜택을 제공합니다!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죠!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 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 보고 활용 등)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건강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쉼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Hopeful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 28 이토록 기다려온 예술인 고용보험
- 32 어린이집 원장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로 제주에서 그린 인생 2막
- 36 심리적 안전감으로 다양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 40 두려움을 이기고 띄운 새로운 희망
- 44 위기를 넘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5가지 약속
- 48 고용노동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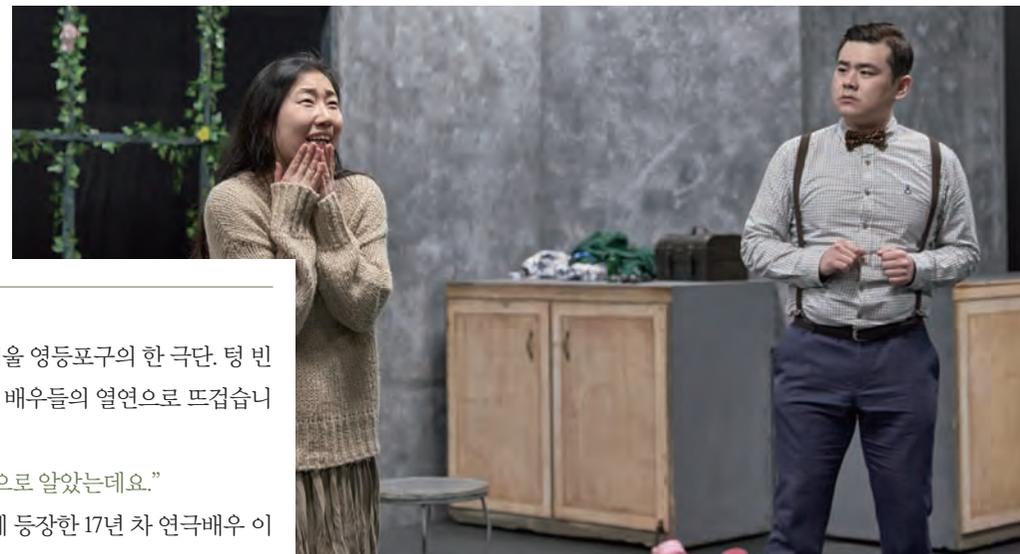


이토록 기다려온 예술인 고용보험

이종승 연극배우
극단 경험과 상상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위원장



누군가 예술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으레 말하곤 합니다. “와 멋있다! 저도 작가, 배우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일상으로 돌아온 예술인들의 삶은 그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죠.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 ‘예술인은 가난하다’는 편견 사이에서 오래도록 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좌절했던 예술인들을 위해 2020년 10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Scene 1.

무대 뒤 그들이 사는 세상

코로나19로 관객이 뜰해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극단. 텅 빈 관객석에도 불구하고 무대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뜨겁습니다.

“30만 원이요? 저는 40만 원으로 알았는데요.”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무대에 등장한 17년 차 연극배우 이종승 씨. 체홉 단편선의 극 중 인물로 분한 그의 옆으로는 각각 N년차 후배들이 온몸을 내던지며 자신이 맡은 인물을 표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안 거겠죠. 저는 분명히 30만 원으로 말했어요.”

극중 노사 관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계약서도 없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안톤 체홉이 살던 시절에도 존재했나 봅니다. 지난 2017년 창단된 극단 경험과 상상은 이처럼 다양한 노동자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이 배우 이종승 씨 또한 20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무대를 지켜왔습니다. 한창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심각한 때에는 <젊은 건설 노동자의 이야기>라는 비대면 공연도 직접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관객이 있던 없든 배우들은 늘 무대를 준비합니다. 요즘 시국에는 텅 빈 객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배우들은 늘 관객석에 앉은 관객을 상상하며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국에도 무대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일상은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다만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사실 관객이 있던 없든 배우들은 늘 무대를 준비합니다. 요즘 시국에는 텅 빈 객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배우들은 늘 관객석에 앉은 관객을 상상하며 연습하거든요.



다시금치포영근 조수영이 리민지,유영민, 최민우, 박민우와 함께



예술인은 가난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배우들은 무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게 될 관객들을 상상하며 매일 연습에 몰두할 뿐이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수입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종승 씨 또한 생계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대리운전부터 건설 현장의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지내고 있죠. 사실 스무 살 연극을 시작할 무렵부터 목공 일을 배우면서 언제나 부업과 배우 일을 병행해왔어요.” 열다섯에 상경한 그는 고깃배를 타거나 공장과 노점상에서 일하면서도 배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cene 2.

예술인은 가난하다는 편견

그는 예술인이 가난하다는 생각이 편견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인이 가난하다는 것은 편견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죠. 실제로 저를 비롯한 대학로의 많은 배우가 N잡을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보수로 살아갑니다. 오래도록 이런 삶이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버텨오긴 했지만, 예술인은 가난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는 배우로 살아온 20여 년 세월 동안 예술인으로 살 것이냐, 근로자로 살 것이냐 사이에서 많은 딜레마를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사회가 함께 이 딜레마를 해소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우리가 참 오래도록 기다려온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시국에는 더욱 시급하죠. 코로나19로 관객 없는 무대에서 몇 개월째 기다리면서 생계의 어려움에 노출된 연극배우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cene 3.

직업으로서의 예술가로 산다는 것

그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1인입니다. 그것은 함께 하는 후배들을 위한 일이기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예술도 노동이고, 직업인으로서 생계를 걸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술인이 부족하거나 못나서 저임금과 제도 밖 상황을 견뎌온 것은 아니죠. 다만 오늘 내가 올리는 무대가, 그림이, 노래가 조금 더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을 꿈꾸면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처럼 후배들은 오늘도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무대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쑥스럽게 웃던 배우 강인성 씨는 ‘무대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앞으로도 예술인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늘봄이's Advice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요) 더불어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도 있다고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산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나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술인, 사업주 각 0.8%로 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요건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 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수급기간 중 노무 미제공
- **지급 수준:**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60만 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어린이집 원장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로 제주에서 그린 인생 2막

안정향 캘리그래피 작가

아담한 제주의 돌담길. 제주 조천읍에서 낮고 정겨운 길을 질러 구불구불 골목으로 들어가면 비밀의 화원같은 널찍한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숲 안에 자리잡고 있는 ‘돌하르방 미술관’. 들어서자 삼삼오오 모여서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 옆에는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 안정향 씨가 있었죠.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옆에 꼭 붙어서 글씨를 쓰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글씨에 취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잡고 쓰는 것, 그게 캘리그래피입니다.”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안정향 작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부산을 떠나 제주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안정향 씨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즐거웠다는 그는 20년 동안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독립하고 자신의 나이도 50대가 넘어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증이 생기니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제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한데 50이 넘어서고, 자녀들도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독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은 제주에서 보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렇다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건강한 육체와 마음이 있을 때 제주에 내려가 보자 싶었어요. 주위에서도 새로운 삶을 꾸려보라며 모두 응원해주었고요.”

주위의 응원과 스스로의 다짐이 만나, 안정향 씨는 한치의 고민 없이 제주로 향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로운 삶을 설계한 그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제주에 내려온 후 초반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오름을 걷고 그림을 그리고 마을을 산책하는 일만 반복했다는 안정향 씨. 그러던 중 취미처럼 그리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돌하르방미술관의 관장이자 서양화가로 활동 중인 김남홍 작가와 연이 닿으며 그림을 그려볼 것에 대한 권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은 제주에서 보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었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저에게 아주 유익한 가이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코칭해주셨으니까요.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할 때’ 라면서 각 시기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스텝도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관장님께서 권유해 주시면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습작 그림들을 보시더니 이곳 미술관에 있는 갤러리에서 1년 후 전시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제 그림에 대해 코칭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주셨어요. 스승이나 다름없죠.”

인생 2막을 가능케 한 인연들

누군가의 권유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곤 합니다. 안정향 작가의 제2의 인생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 크고 넓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위에 언급한 김수영 관장이며 또 다른 이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강수영 소장이었습니다.

“강수영 소장님이 아니셨다면 다시 제 2의 삶으로 도약하지 못했을 거예요. 2018년 봄, 제주에서의 삶이 조금은 막막하기도 해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찾아갔거든요. 제주에서 2년을 꼭 쉬었으니 경력이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현대 경력단

절이 아니어도 저의 이전 어린이집 경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어요. 서서히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을 때 강수영 소장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이음 일자리’ 1기에 선정됐죠. 이를 계기로 캘리그래피 강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부산에서 캘리그래피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상태였기에 이곳 제주에서 안정향 씨는 캘리그래피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과 캘리그래피, 펜 드로잉에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자신에게 딱 알맞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강사이자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도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50년 넘게 살았지만, 은퇴 후 삶은 저도 처음이니까요. 그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저에게 아주 유익한 가이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코칭해주셨으니까요.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할 때’ 라면서 각 시기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스텝도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현재 ‘참새단 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어 강의도 하고 제 개인적인 그림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망설이기보다 저질러야 할 나이

그저 제주의 아름다움이 좋았을 뿐인데, 이곳에 내려오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다는 안정향 씨.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보다 전문성을 살리고 싶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50이 넘는 나이에 다시 배움을 시작한 것은 전문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그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안정향 씨는 지난 2018년 북촌 돌하르방 공원에서 ‘안정향 드로잉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에는 드로잉 초대전 ‘마을을 걷는다’를 열었고, 같은 해 안산에서는 ‘제16회 안산국제아트페어 AIAF’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했죠.

“올해로 캘리그래피 강사로 활동한지 4년 차, 작가로 활동한지는 3년 차예요. 요즘은 매일매일이 참 감사하고 보람돼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제 그림이 갤러리에 전시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러한 소통의 영역을 더 넓혀, 앞으로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노인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는 안정향 씨. 이러한 꿈 역시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노인심리 치료사’, ‘노인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림이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린이와 노년층까지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더 이상 뭔가를 망설일 나이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야 할 때죠. 마음이 흐르는 대로 뭔가를 해도 괜찮아요. 인생에는 답이 없지만, 그나마 가장 근접한 답이 있다면 ‘마음 가는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제주에 내려와서 전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가, 아닌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죠.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 살다보니 지금의 삶을 만들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원함을 용기있게 실행하고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향 씨는 ‘취미로 시작해도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인 만큼 한번도 과감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도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해져도 되지 않겠냐는 대답을 건네며, 그녀는 오늘도 제주의 소담한 돌담길을 자신의 백지 위에 그려나갔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시작은 취미의 재반경이었다.

너처럼 인생2막을 새롭게 출발하는 중장년층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싶다면 그녀.

유치원 교사에서 그림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강사는 눈부시게 변신하는 모습은

제주센터의 큰 보람이자 자랑스러운 것이다.

어쩌면 백마더의 만보다 ‘그림의 힘’이

가져온 놀라운 치유효과가 아니었을까?

그가 진행하는 ‘캘리그래피를 통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희망을 주고 있다. 같은 베이비붐

세대로 그녀가 그녀는 인생반전 드라마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다. 그래서 종종

비슷한 1인 창업을 꿈꾸는 구직자들에게

멘토로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롤모델.

구직자에서 그림을 통한 마음치유강사로

활약하는 안정향 선생님의 인생2막은

우리의 시작이기도 목표이기도 하다.

마치 긍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잘 하고 있고 잘 되실 거예요

안정향 선생님!

송왕준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심리적 안전감으로 다양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하는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모두 불러오는 마법의 열쇠인데요. 여기에 구성원의 다양성을 더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로펌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유) 율촌입니다.

법률 서비스와 일자리 모두 으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담은 뜻으로, 1997년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펌의 특성상 자격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전문가 (Professional) 그룹과, 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스태프(Staff)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는데요. 900여 명의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작년 7월, 율촌에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선 100개 기업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영예를 누리는데 율촌은 로펌 중 유일하게 선정됐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지자, 인사팀 신영모 대리가 얼마 전 있었던 일화를 덧붙입니다. “2021년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강석훈 대표 변호사님께서, ‘율촌 직원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게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회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율촌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이유가 이 한 문장에 응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단지 직장으로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자 중 여성비율

35.48%

중증장애인 직원 수

14명

법무법인(유) 율촌 설립연도

1997년



서의 안정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마음껏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도전의 결과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이 정신이 바로 율촌 일자리 혁신의 밑바탕이었습니다.

다양성을 향한 다각적 도전

율촌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2010년은 가장 눈에 띄는 해였습니다. 당시 율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공단과의 공동 직무분석을 통해 복사, 우편물 정리 및 배송, 청소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고용했습니다. 2020년 2월 율촌에서 고용한 중증장애인 총 14명. 더불어 전문가 그룹 중 ‘장애인 고문’

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힘써 왔으며, 총무팀과 인사팀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율촌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평균 율촌의 청년 근로자는 200명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15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청년인턴 제도를 활용, 2018년부터 100여 명의 인턴을 선발했고 상당수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시행한 ‘일학습병행 인턴’의 경우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사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2018년에는 안내 데스크에서 파견 근무하던 간접 고용 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따로 채용하기도 했고,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보기도 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임경아 인사팀장의 설명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내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볼러올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상생’으로 나아가다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돼 있다는 것도 율촌의 큰 특징입니다. 율촌의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여성고용 비율은 45.73%,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35.48%로 동종 산업 평균치를 웃돕니다. 스태프 그룹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61.1%까지 높아지며, 전문가 그룹의 여성 변호사 비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임직원의 수가 많다 보니 생리휴가, 육아휴직

율촌은 앞으로도 ‘가장 큰 자산은 인적자원’이라는 신념 아래,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든든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계획합니다.

등을 사용하는 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후 복직에도 전혀 문제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 갈 일이 생겨서 휴가를 쓰는 남성 임직원들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도입하며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 임직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듯 율촌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기댈 수 있는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복지시설 및 제도도 훌륭합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강연이 열리는 교육장과 서울의 전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내 카페가 두루 마련돼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실손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업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상담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율촌은 앞으로도 ‘가장 큰 자산은 인적자원’이라는 신념 아래,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든든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계획합니다. ‘지속 가능한 상생’을 향한 율촌의 행보를 힘껏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비결

- 
임직원 심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실손단체보험, 심리상담 제공
- 
사내 카페, 교육장, 장애인 휴게실 등 복지시설 운영
- 
모든 임직원 육아휴직 보장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 개최
- 
장애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기면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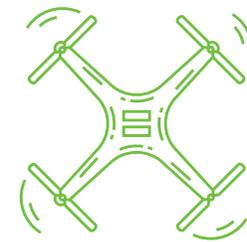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조용희 씨

두려움을
이기고 띄운

새로운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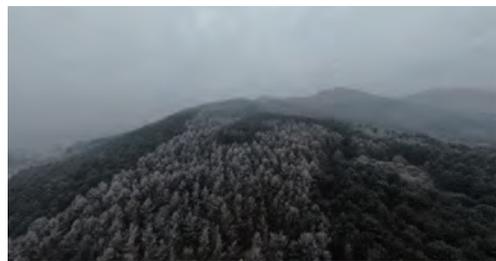
작년 초 갑작스럽게 불거진 코로나19 상황은 영화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촬영팀의 일원으로서 촬영감독이라는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던 청년, 조용희 씨의 일상도 한순간에 멈췄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새로운 희망을 띄우기 위한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국가전문자격증(이하 드론 국가자격증)에 도전한 것입니다.

‘좋은 영상’을 향한 뜨거운 도전

촬영감독은 ‘촬영 현장의 지휘자’입니다. 좋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연출·미술·조명·기획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촬영감독의 구상과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조용희 씨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내는 선배 촬영감독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촬영감독이 되기로 말이죠.

올해 서른에 접어든 그는 인생의 절반을 영상 촬영에 쏟아부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내 방송부 활동을 계기로 카메라를 잡은 뒤, 지금까지 이 길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걸어왔는데요. 대학교 영화 관련 학과에 진학한 이후 특히 영화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스물한 살이 되던 2012년부터 틈틈이 상업영화 촬영 현장에서 촬영팀의 일원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애써 갈고닦은 노하우를 더욱 가다듬고 싶어 군 입대를 미뤘을 정도로 집중력과 욕심이 대단했죠. 대학교 졸업 학점을 취득하자마자 군인이 된 조용희 씨는 곧바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고, 전역 한 달만에 대학원 영화영상제작과에 입학해 한 차원 높은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동시에 현장을 누비며 경력을 착실히 쌓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영화 촬영 장비와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영화 촬영팀의 활동 폭이 넓어졌고, 저 또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촬영감독님 곁에서 촬영기기의 초점을 책임지는 ‘포커스 풀러(Focus puller)’로 활동하며 영상 제작을 위한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다

그의 오랜 꿈이 기지개를 켜려던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유행 조짐을 보이던 코로나19가 기어코 우리나라를 덮친 것입니다. 작년 2월 중순 직후 모든 촬영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현장으로 향하던 조용희 씨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이를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이 그를 덮쳤죠.

“일할 수 있는 다른 촬영 현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이 타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할 일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했는데요. 고심 끝에 발견한 것이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촬영팀의 누군가가 드론을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하는 공중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조용희 씨는 2017년 말부터 이따금씩 드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게 12kg 이하의 드론은 누구나 조종할 수 있었기에, 현장에서의 즉



흥적인 항공 촬영을 대비해 독학으로 드론 조종을 익혀서 활용했던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촬영 스케줄을 미리 파악한 뒤 항공 촬영이 필요할 것 같은 날짜와 장소를 골라 미리 드론 비행 허가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드론을 날려야 할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섰죠. 능력 있는 촬영감독이 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는데요. 감염병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김에 전문적인 드론 지식 및 조종 능력을 갖추기로 마음먹었고, 4월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뒤 7월부터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가능성을 넓혀 준 ‘희망의 디딤돌’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등에 업은 조용희 씨는 한 달여간 진행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8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야 했지만, 장마 때문에 9월로 시험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현장 촬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촬영일과 시험일이 겹치지 않기를 기도하며 9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촬영 일정이 확정됐고, 가슴 졸이며 스케줄표를 확인했는데요. 기적적으로 촬영을 하지 않는

단 하루와 시험일이 같았습니다. 촬영을 끝낸 직후 심호흡으로 긴장을 다스리며 시험장으로 향했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마침내 드론 조종 전문가로서 촬영 현장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조용희 씨의 입지는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드론 촬영에 나서서 그를 못 미더워하는 눈초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드론 촬영에 관한 한 누구나 그를 신뢰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항공 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그에게 구합니다. 조용희 씨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드론 전문 촬영업체를 꾸린 뒤 다양한 항공 영상을 촬영하며 부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촬영감독을 향한 그의 행보에 한걸 속도가 붙었음은 물론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죠. 영화 같은 감염병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잘 활용해서 성장 가능성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도전하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수강생's 꿀팁>

드론 조종의 첫걸음은 이론 수업입니다

이제 막 드론 조종에 입문한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실기 능력 향상에 치중하 나머지 이론 수업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가장 먼저 교통지식·신호체계·자동차 작동법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드론을 제대로 조종하려면 관련 지식과 안전요령, 관련 법규를 먼저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 실기에 앞서, 이론 수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5 가지 약속

고용노동부는 2021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 일자리 예산 1/4분기 신속 집행·78만 명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합니다. 104만 2천 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하여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험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4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1.7만 명·디지털 기초훈련비용 추가(50만 원) 지원 4만 명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혁신적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1.7만 명)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업종·지역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하에서도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디지털융합훈련비용 50만원 추가 지원('21년 4만명),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21년 27.6만 명)
** 근로자 중심 「직업능력개발법」→ 모든 국민 대상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직무능력 향상 중심 「국민내일배움카드」→ 포괄·융합적 직무기초능력 추가 「국민내일카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 마련 추진('21.1/4)

3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9만 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지속 추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 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21.7월~)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21.7월~)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수 20% 이상 감축·산재예방사업 예산 2.3배 증액(+5,573억 원)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5~50인 미만은 ‘24.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가겠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 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1년 53백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 (‘20년 7천 개소 → ‘21년 1만 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 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요내용: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금년 증차된 산업안전 패트롤카(‘20년 108대→‘21년 404대) 집중 투입

5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 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가겠습니다.

* 직종별 특화된 건강진단 신설(33.5억 원), 취약 사업장 방역점검·감독 강화, 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 등



MOEL News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 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입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2

고용유지지원 사업장인 제주항공을 방문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8일 서울 강서구 소재 (주)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Pandemic)으로 해외 및 국내 항공수요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업체(LCC)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여건에서도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20년 한 해 동안 7만 2천 개 사업체 77만 명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1조 5,4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월 15일 현재 2만 1천 개 사업체 14만 명에 대해 1,60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항공과 항공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히,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3일 서울 남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2021년 연두 업무보고(서면) 이후 장관의 첫 현장 행보로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의 가치 달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입니다. 지난 2월 2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9.9만 명으로, 이 중 청년층(18~34세)이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3만 명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 1 유형 수급자 3,055명의 취업활동계획(IAP)이 수립되었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참여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비대면(온라인) 간담회'로 실시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미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준비할 서류 등 궁금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누리집(www.work.go.kr/kua), 전국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 급여 지급요건 등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5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요 택배사*의 택배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 안전보건 조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분류지원인력 6천 명 총원이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조정 등 업무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보건조치 개선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택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과로의 위험이 더 높은 점에서 설 이후에도 안전·건강 보호에 힘써주시길"을 요청했습니다.

*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6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발표한 이번 계획의 내용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추락·끼임·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본사·원청·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②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검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④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8

신세계911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 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입니다.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 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과 ○○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ealing



인생 2막, 볼을 켜다

- 56 도시 남녀의 워라밸 당신의 휴식은 안녕한가요?
- 60 이제 그만 퇴근하게 해주세요!
- 62 부업으로 해볼 만한 N잡과 사이드 프로젝트 어떤 것이 있을까?
- 64 워라밸이라는 말 저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 68 일상이 권태로운 당신에게 악기 연주를 권함!
- 70 요즘 운동 #오늘하루운동
- 72 3월 음반·책·영화 추천
- 78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80 #내일스타그램



도시 남녀의 워라벨 당신의 휴식은 안녕한가요?



독특한 연출과 출연진들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사랑받는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 짧은 러닝타임의 드라마 속에는 러브스토리와 함께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각 인물의 시선을 따라 도시남녀의 워라벨을 살펴볼까요?

재원's Story

내가 꿈꿔온 리프레시 휴가
양양에서 한 달 살기



재원(지창욱 배우)은 몹시 들떴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휴가를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시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의 치인 분주한 삶을 뒤로 한채 찾은 곳은 강원도 양양. 서핑하기 좋은 해변 덕분에 서퍼들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양양의 눈부신 바다를 찾은 그는 무려 한 달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눈 뜨고, 원할 때마다 서핑을 하기 위해서였죠. 오랫동안 꿈꿔온 휴가지에서 행복감에 젖은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히피풍을 하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는 그녀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죠. 조금씩 빠져드는 스스로를 느끼는 재원은 은오(김지원 배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휴가지의 설렘과 함께 찾아온 이 사랑, 과연 괜찮은 걸까요?

☺ 여기서 잠깐! ☆

리프레시 휴가로 일하면서도 한 달이나 쉴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피로한 심신의 회복과 활력을 주기 위한 장기 유급휴가입니다. 리프레시 휴가는 통상 3년·5년·10년 근속자들에게 포상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답니다!

은오's Story

퇴사 후 갭이어 여행,
잠시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은오는 도시 생활에 지쳤습니다. 마케팅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하지만 어쩐지 점점 자신의 모습은 잃어가는 것만 같죠.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한 후 무작정 양양으로 떠나왔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회사의 기대와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채 여행객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던 중, 은오는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서핑을 좋아한다는 이 남자. 점점 더 알아가고 싶지만 여행지에서의 자신과 도시에서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괴리감에 선택 자원과의 약속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죠. 어쩌면 한여름 밤의 꿈처럼 간직해야 하는 인연일까요? 도시에 돌아가서도 이 사랑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은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 여기서 잠깐!

갭이어가 뭔가요?

갭이어는 학업이나 본업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 봉사, 어학연수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960년 영국에서 시작된 갭이어의 개념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라는 정착으로도 안착했는데요. 최근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잠시 갭이어를 갖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갭이어 기간을 가지는 추세입니다.

With Story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사랑하자

꿈같은 휴가 후 서울로 돌아온 은오와 재원은 결국 약속한 날 만나지 못하고, 재원은 알 수 없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한 은오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마케팅 회사로서 새출발을 하죠. 먼길을 돌아 결국 우연히 마주치게 된 두 사람. 그리움과 분노·미안함·애뜻함이 교차하는 여러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끝내 다시 사랑을 선택한 은오는 말합니다. “나는 뭘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서 살 거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인생은 나한테 맞지도 않아.” 스스로 모습을 긍정하며 사랑을 선택한 그들의 앞길에 꽃길도 오래오래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 여기서 잠깐!

경력 단절자 취·창업 준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고용안정망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돕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돕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해준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www.korea-ua.com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은오와 같이 사업자를 준비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를 방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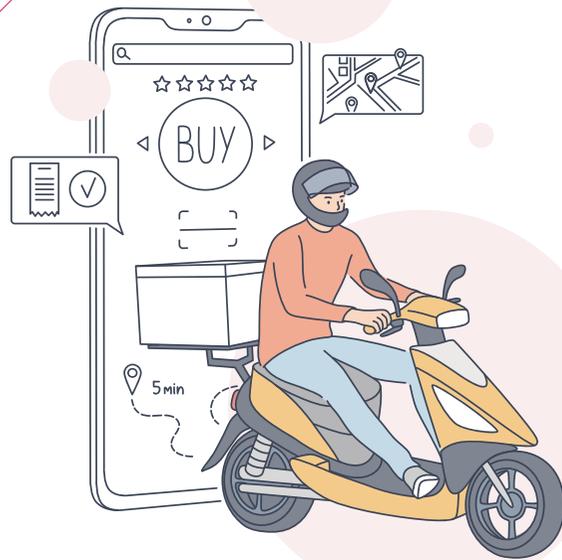


부업으로 해볼 만한 N잡과 사이드 프로젝트 어떤 것이 있을까?

나도 저자가 될 수 있다!

출판물·전자책 만들기

작가의 꿈을 키워왔다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요즘엔 누구나 책을 만들고 작가가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높은 경쟁률의 등단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작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독립출판, 자비출판, 펀딩 프로젝트 등. 출판을 경험할 수 있는 루트가 무궁무진해졌기 때문이죠. SNS·브런치 등의 툴을 통해서 글을 꾸준히 오픈하고, 출판물로 제작하거나 전자 PDF로 제작해 출판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니 글쓰기에 자신있는 분이시면, 작가로서의 부캐를 일깨워보세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최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업으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가 주목받고 있죠?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배달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폭도 넓은 편이고 가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직장인이 부업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소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N잡러에 도전한다면 해봄직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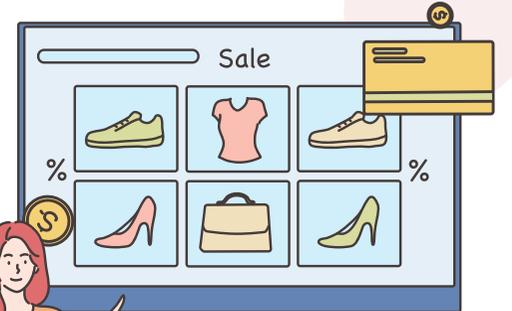


부캐 전성시대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캐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계발하고 재미와 성장, 수익 모두를 거머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적은 자본으로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N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미있게 포트폴리오 만들기

유튜브 크리에이터·SNS 채널

직장인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유튜브야 해야지”란 말이 상위권을 차지 않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듯. 최근 유튜브에 도전하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나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부터 노래나 미술 등 나의 재능을 뽐내는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물을 창작해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인스타그램 등의 SNS 채널을 통해서 글이나 일러스트 작품을 공개하고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방식도 업무제안이 속속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니. 집에서 홀로 끄적이던 나의 소중한 작품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봐도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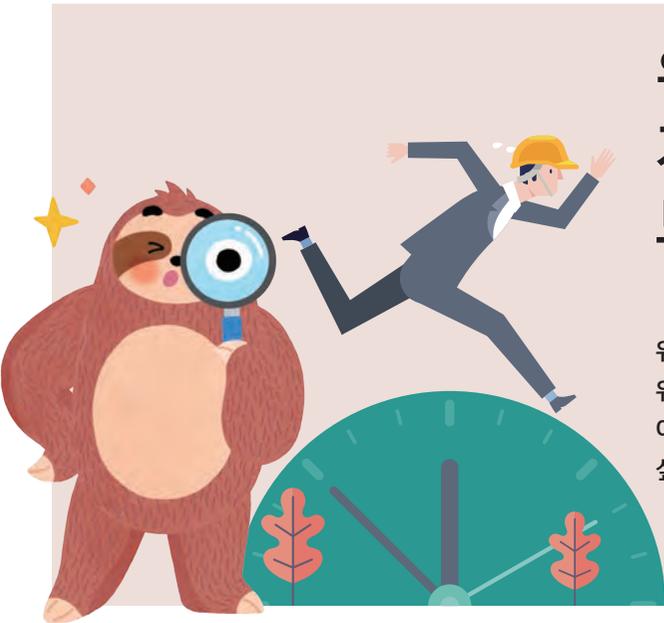


온라인에서 나도 CEO

스마트 스토어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이 창업해서 큰 수익으로 남긴 것으로 유명한 N잡이죠. 스마트 스토어 또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는 부업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처럼 오픈을 위한 복잡다단한 과정없이 온라인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쇼핑물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플랫폼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고, 적은 자본으로 온라인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행해본 이후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혀 추후 오프라인 매장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워라밸이라는 말 저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워라밸이 대세인 요즘이지만, 여전히 워라밸을 이루는 삶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는 바람, 여러분은 잘 이루고 계신가요?

Q1 5인 정도 되는 공장에서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출근은 9시지만 퇴근 시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간혹 고객이 납품 일을 당겨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새벽까지 근무하기도 합니다. 올해 7월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 같은 작은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소기업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혜택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 제한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근로시간의 단축은 개별 사업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그 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강제로 단축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로 인해 소득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이나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이유와 기간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때에는 1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할 수 있으며, 동 특별연장근로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컨설팅을 통해 사용자는 교대제나 상담의 경우처럼 불규칙한 업무량이 발생하는 때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을 맞춤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회사는 ①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조정이나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②소속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예상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형태를 유연하게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때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원금별 세부 요건이나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방송국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연출입니다. 저는 대기업 규모의 방송국에서 일하지만, 소속의 20명 남짓되는 외부 인력업체 소속인 파견계약직인데요. 방송국에 근무하는 저에게 주52시간 근무제는 꿈같은 말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당시에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밤샘 작업과 철야의 연속이라 지난주만 해도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퇴근도 없이 방송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 현장의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지만, 이동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친구도 가족도 잃어가면서 일터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지치는데요. 저도 워라밸이라는 것을 누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 파견 노동자도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 2018년 개정·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 이내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동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담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20명 정도이므로 주52시간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됩니다. 다만, 상담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견이 허용된 업무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방송국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주52시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송 업계의 운영 특성과 종전까지 이어져 온 관행 등으로 인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방송 업계의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 내용과 관련해, ①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물론 재량근로시간제나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예외적 근로시간 관련 적용 제도가 있으나 이는 예외로 함), ②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관련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③한편 근로시간 한도에 대해 방송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업계 특성상 한순간에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요 방송 3사가 이미 주52시간 제도 위주로 운영체계를 변경하고 있고 외주 기업을 통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해, 현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는 고용노동부 등에 익명으로 근로시간 관련 상담을 하거나 해당 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여 근로시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담자는 ①면접 당시 근로조건을 고려하건대 주52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됐을 가능성이 크며, ②그렇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근로시간 산정시 지방 등으로의 장거리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④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Q3 대기업 3년 차 대리입니다. 저는 타 부서까지 소문난 워커홀릭인데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일 처리를 하느라 매일매일 야근과 철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6시 이후로는 워라벨을 위해서 PC 셧다운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과 시간 내로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저랑 몇몇 동료들은 노트북을 챙겨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야근을 하는데요. 차라리 회사에서 상황에 따른 야근을 허용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워라벨도 중요하지만, 당장 코앞의 프로젝트가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맘 편하게 퇴근이 힘든 상황인데요. 회사에 상황에 따른 야근 허용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공공의 적이 될까 두렵지만, 저녁마다 카페에서 야근하는 것이 지칩니다. 그렇다면요면 별도의 유연근무제를 요청해서 이번 주에 야근을 하고 차주에 조금 덜 일하든지 이렇게 조절하도록 제안하거나 해도 될까요?

주 52시간 근로 제한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승인할 수 없고 직원은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회사의 지시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담 사례의 경우처럼 본인의 필요나 희망에 따른 업무수행까지 근로시간 제한을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직원의 역량이나 성장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법정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제한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기적 계절사업 등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관련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제도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컨대 1개월을 4주로 가정했을 때,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고려해 처음 2개 주는 주 60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주는 주 20시간씩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주를 평균했을 때에는 주평균 4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시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종전 1개월에서 3개월 내 제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2021년 1월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직원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하여 상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나 분석, 광고 등의 디자인이나 고안, 방송의 감독 등의 법정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아무런 근로시간 제한없이 회사 내외에서 근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태부서가 인정할 경우에 상담자는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식 인정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회사 내에서 자발적 근로를 하고자 하며, 동 자발적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회사 내에서 본인의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가족 친화 기업을 표방하고 워라벨을 권장하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만, 고객사와의 술자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6시 퇴근 시간이 끝나면, 사실상 본격적인 영업 업무의 시작입니다. 7~8시쯤 시작되는 술자리는 무르익으면 2차, 3차까지 가면서 12시는 되어야 집으로 갈 수 있죠. 사실상 이런 시간은 업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지만 공식적으로 업무시간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워라벨 기업에 다니지만 속은 굶아가는 저. 과연 워라벨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고객사와의 접대나 술자리는 업무시간으로 포함이 어려울까요? 이 직군을 탈출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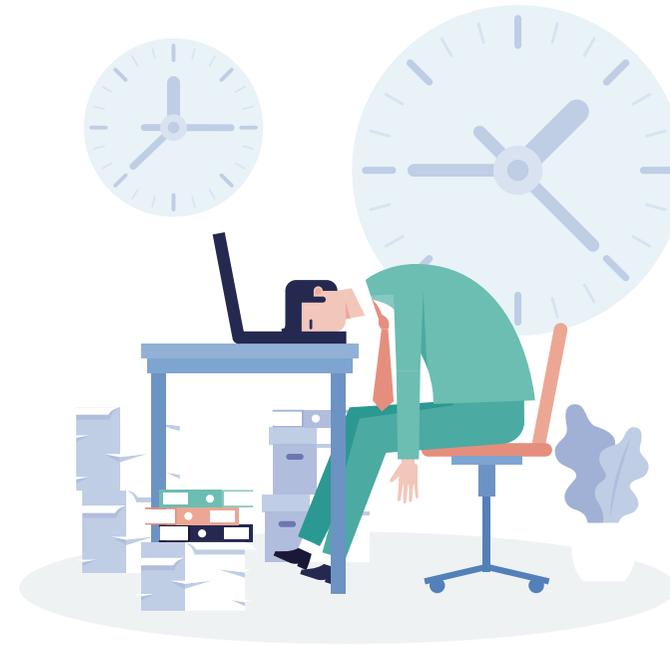
약정된 출퇴근시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영업부서 등은 그 특성상 퇴근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해당 활동 시간이 근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근시간 이후 영업활동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것이고 동 접대에 대한 회사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집계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사례와 관련해 회사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제한 문제만을 검토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회사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퇴근시간 이후 영업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영업 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한도 초과 문제가 있고 동 영업활동 관련한 시간을 완전히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영업 담당 직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내에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회사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영업 담당 직원의 평균적인 총근로시간을 사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간을 간주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일정한 야간시간대까지의 과도한 영업활동이 있는 때에는 가능한 익일 오전의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영업활동에 기초한 익일 보상휴가제를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상담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소극적인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문제를 떠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고 퇴근시간 이후 접대 등으로 직원의 건강이 문제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일정한 회복시간이나 주기적 회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접대로 인해 훼손된 건강의 회복과 관련한 제도는 회사가 인사노무관리상 퇴근시간 이후 영업활동 시간을 공식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이 권태로운 당신에게 악기 연주를 권함!



음악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권태롭거나 건조하게 느껴지던 일상도 음악이 더해지면 생명력이 생기죠. 지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당신에게 악기 연주를 권합니다.



스트레스를 분출엔 타악기가 제격!
드럼

넘치는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싶다면? 타악기를 권합니다.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리듬감에 몸을 맡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드럼의 경우 합주 연주를 할 때 다른 많은 악기의 박자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협업의 즐거움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악기인 것 같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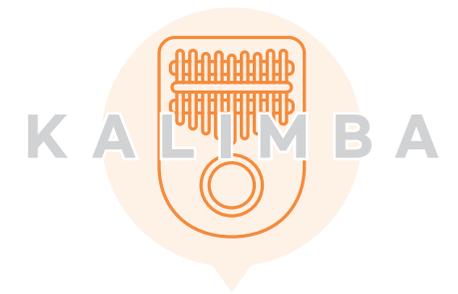
낭만의 아이콘
기타

어디서든 들기만 하면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악기죠? 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초심자에게 연주법이 쉽지만은 않지만, 코드에 맞는 주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장소의 이동이나 악기 둘 곳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기타 연주와 함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피아노

대중적인 악기이자 많은 분에게 가장 친숙한 연주 도구인 피아노.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서 사과를 색칠하며 바이엘과 체르니를 열심히 쳐 본 기억이 있진 않나요? 최근 다시 피아노 학원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을 누비며 악보 위 음표들을 읽어나가는 순간의 몰입감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다면
칼림바

요즘 취미로 가장 핫한 악기가 있다면 바로 이 악기일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도 아름다운 칼림바는 비교적 휴대도 간편하고 양손으로 들고 손가락을 이용해 연주할 수 있어서 주법이 상당히 쉬운 편이 속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악기 취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요즘 운동 #오늘하루운동

2021년의 트렌드를 예측한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오늘하루운동’은 2021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졌고, 스스로 운동하고 인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SNS 속 운동의 풍경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고 운동 트렌트를 읽어볼까요?

○○○

대세는 홈트!
유튜브와 함께 운동을~

유튜브에 속속 등장한 트레이너들과 함께 홈트레이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홈트레이닝 영상들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원하는 운동 스타일에 따라 신나는 음악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즐길수도, 근육을 뽐낼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력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트 #운동인증샷

○○○

함께 뛰면 멀리 뛴다!
러닝 크루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말이 있죠. 함께 목적을 정하고 달리면 홀로 달리거나 걸을 때보다 더 목표를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최근 도심 곳곳에서 러닝크루를 결성하고 함께 뛰는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함께 뛰면서 건강도 지키고 상황에 따라 마음에 맞는 동네친구도 만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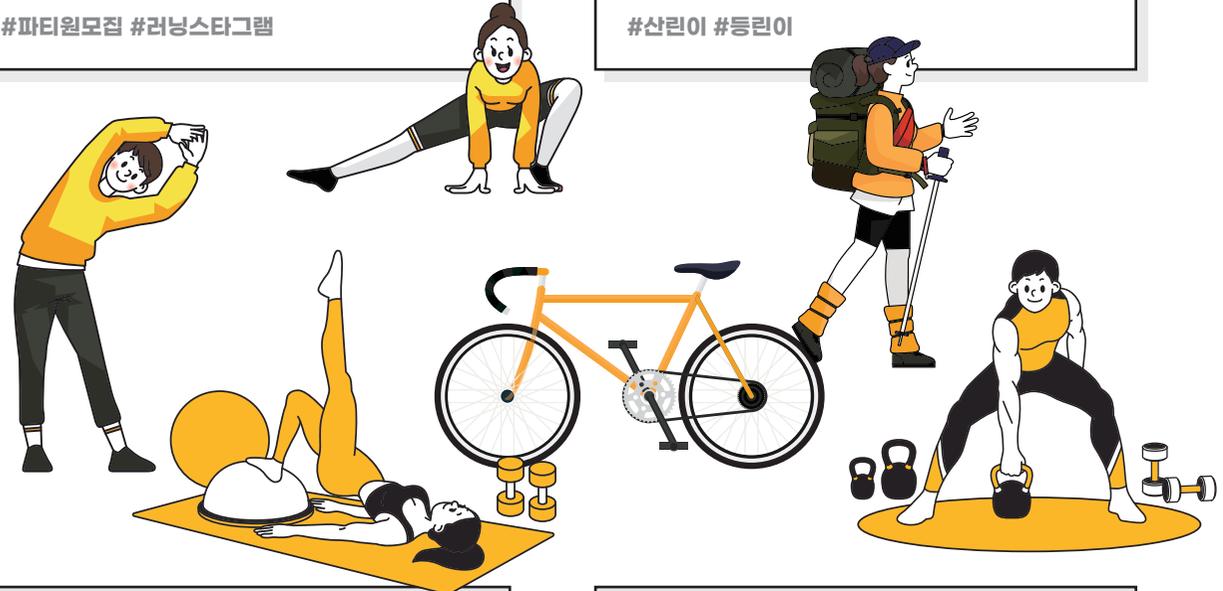
#파티원모집 #러닝스타그램

○○○

레깅스 입고 등산합니다!
등산

코로나19로 답답해진 청년들이 대거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운동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초심자를 뜻하는 ~린이 라는 애칭이 붙으면서 등산을 하는 ‘산린이’, ‘등린이’를 자처하는 이들이 SNS상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날이 풀이면 더 많은 산린이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죠?

#산린이 #등린이



○○○

몸의 균형을 잡아볼까요!
필라테스와 요가

요가 매트 깔고 필라테스나 요가로 차분히 아침을 여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레슨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중심과 호흡을 잡아주어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어요.

#마사지볼 #코어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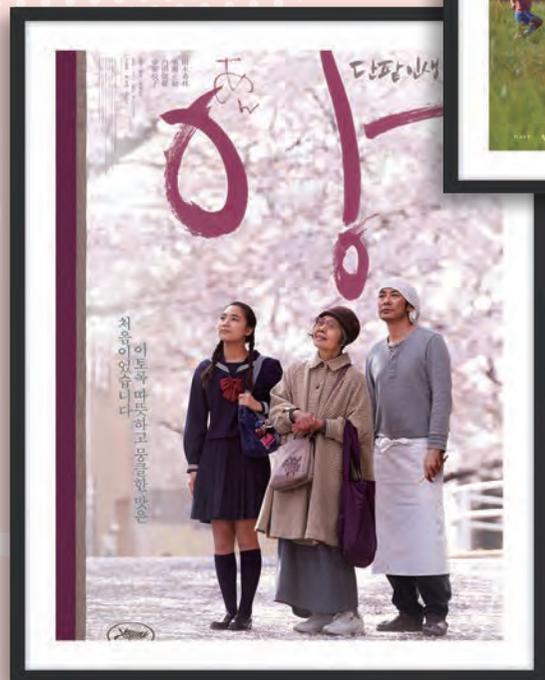
○○○

사이클타고 버닝 업!
라이딩

사이클은 외부에서도 실내에서도 즐기기에 좋은 운동 중 하나죠! 빠르고 가벼운 무게로 돌리면서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고 더불어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하체 근육에도 자극을 주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파퓰러 #스피닝 #한강공원

이토록 화창한 봄날의 영화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건축학개론>

뜻뜻하고 어설픈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죠. 가수 수지에게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선사하고 배우 조정석을 남뚝이라는 캐릭터로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영화 <건축학개론>. 봄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로 손꼽히는데요. 따뜻하고 포근한 배경의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모두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극중 배우

이제훈과 수지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나오는데요. 훗날 중년이 된 남자주인공이 지은 집의 배경이 된 제주도 카페 '서연의 집'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시절 설렘을 회상해볼까요?



기생충을 잇는 기대작

<미나리>

해외에서 선댄스영화제를 수상하고 영화 '기생충'이 수상했던 오스카상 후보로도 거론되며 큰 관심이 쏠리고 있죠. 배우 윤여정과 한예리가 출연하는 영화 미나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잘 자란다는 미나리에서 제목을 따온 이 영화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2021년 3월 3일 스크린을 통해 국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해외에서의 기대와 성취만큼, 코로나19로 관객의 가뭄이 난 극장에도 단비같은 작품이 되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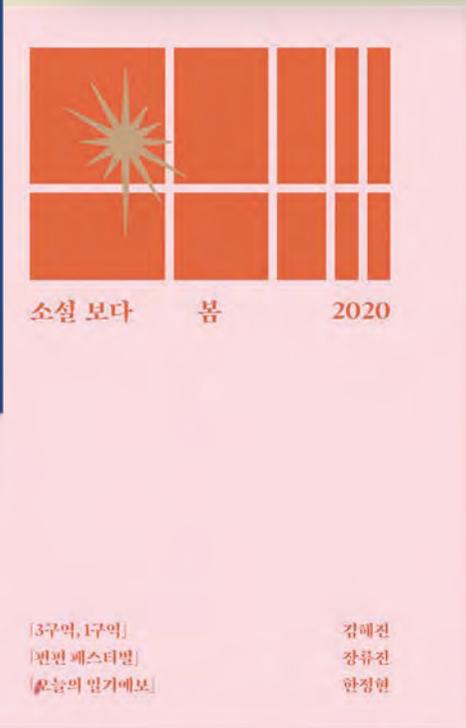
몽글한 단팥빵의 한줌 담백한 위로

<앙>

절제되고 담백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특별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죠. 극의 배경이 되는 일본 전통 단팥빵 가게의 주인 '센타로'에게 '도구에'라는 할머니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목 탓에 음식이 주제가 되는 영화로 오해하기 쉽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갓 구운 단팥빵을 크게 한입 베어문 듯한 포근함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겨우내 움크린 마음을 펼치세요



비로소 다시 걷기 좋은 계절

하정우 <걷는 사람 하정우>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에는 잠깐의 외출도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봄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따뜻하게 스치는 바람, 솟아나는 앞사귀들은 산책의 묘미를 더하죠. 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 하정우는 책 <걷는사람 하정우>를 통해서 걷기에 대한 애정을 전합니다. 실제로 그는 매일 강남의 집에서 마포나 상암의 근무지까지도 걸어나다니며 하루 3만 보씩 걷고, 많이 걸을 때는 10만 보까지도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걷기 마니아인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훌쩍 밖으로 나서서 산책하고 싶어집니다.

시가 필요한 주말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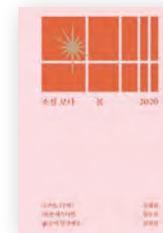


30만 부나 판매되며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시집이죠. 시인 나태주 작가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라는 문장의 시 '풀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동안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회자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와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남자친구>에서도 배우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이 시집을 선물했었죠. 그 외에도 나태주 시인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에서 너라는 인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슬픔과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는데요. 꾸밈없이 순수한 사랑의 문장을 읽고 싶은 날이라면 시집을 펼쳐 보세요!

그 동안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회자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와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남자친구>에서도 배우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이 시집을 선물했었죠. 그 외에도 나태주 시인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에서 너라는 인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슬픔과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는데요. 꾸밈없이 순수한 사랑의 문장을 읽고 싶은 날이라면 시집을 펼쳐 보세요!

가볍게 휴대하는 목직한 소설집

<소설보다 봄>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에서 계절마다 발간하는 시리즈 단편소설집. <소설보다> 시리즈는 분기별로 계절에 읽기 좋은 소설들을 선정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엄선해서 선정한 작가들의 단편 소설 3편이 계절에

어울리는 색감의 표지를 입고 독자들을 유혹하는데요. 가볍고 작은 판형으로 만들어져 휴대하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가방에 넣어다니다가 부담없이 한 편씩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김혜진, 장류진, 한정현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는데요. 2021년에는 어떤 작가들이 소개될까요? 이 봄 어찌지 문학소녀가 되어 센치함을 뽐내고 싶은 당신! 소설보다 봄 시리즈를 통해 잠시 소설 속 이야기로 빠져보세요.

꽃 피는 봄이오면 명반 듣고 나빌레라



노래에서 샴푸향이 나오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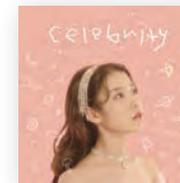
벚꽃이 피는 시즌만 되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탓에 벚꽃엔딩이란 별명을 가진 노래 '벚꽃엔딩'.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벚꽃엔딩을 노래한 가수 장범준의 또 다른 명곡이 2019년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멜로가체질'에 OST로 삽입된 곡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인데요. 제목이 참 길죠? 이 노래는 극중에서 실제로 배우들이 기타를 들고 부르기도 하면서 극에서 큰 역할을 했었어요. 상쾌한 느낌의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 덕분에 또 다른 '벚꽃엔딩' 곡이 탄생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어쩐지 이 가수, 봄을 참 사랑하는 것 같죠?



합하게 걸어볼까?

선우정아 <봄치녀>

재즈가수의 대표주자인 선우정아가 2015년 발표한 앨범 <봄치녀>는 합한 봄노래의 대명사입니다. 중독성 있는 후크 부분과 시원한 선우정아의 가창력이 어루어진 노래로 봄이 되면 한 번씩 떠오르는 명곡이죠. '봄치녀 제 오시네/새 풀꽃을 입으셨네'라는 가사의 옛 가곡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낭만적인 가사와 파워풀한 반주가 묘한 매력을 풍기는 노래입니다. 어쩐지 이 노래를 들으며 산책을 하면 걸음걸이가 조금 더 당당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기분 탓이 아니겠죠!



당신 속 봄의 발견

아이유 <Celebrity>

해성처럼 나타나 국민 여동생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다가 이제는 어엿한 뮤지션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는 가수 아이유. 2021년 신곡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는데, 화사한 앨범 재킷에 맞는 따뜻한 가사와 화창한 멜로디의 노래로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셀레브리티로 살아가는 자전적 고민이 담긴 가사일 거란 대중들의 예상을 깨고, 노래를 듣는 이들 모두가 반짝이는 셀레브리티 같은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해매도 좋으니 당신의 반짝거림을 발견하라는 노랫말과 함께라면 이 봄 날 흐드러진 벚꽃 터널에서 잠시 길을 잃어도 좋지 않을까요?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해외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

복지 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육아 천국' 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며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정적인 정책이 스웨덴을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스웨덴의 '라떼 파파'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떼 파파란 한 손엔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며 선구적인 육아휴직 정책 덕분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들이 많아진 스웨덴에서 유래한 문화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생활하면 정말 쉽게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공원,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을까요? 1937년부터 법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했던 스웨덴은 1955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보편적인 형태의 육아휴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197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산과 출산휴가에 관한 많은 혜택을 결합시켜 현재와 같은 육아휴직 시스템을 형성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때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아빠들에게도 부여하기 시작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권리가 있다고 보장

해 준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무려 1937년부터 육아휴직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개선해온 스웨덴의 노력이 지금의 스웨덴을 육아 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 이후에도 스웨덴은 더 나은 육아휴직 정책을 위해 꾸준히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더 높은 성 평등을 달성하려 했으나 90년대 초까지 육아휴직을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스웨덴은 1995년과 2002년 개정을 통해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반드시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부모 할당제(Parenting quota)' 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전체 15달 중 1달(30일)이, 2002년에는 좀 더 늘어난 전체 16달 중 2달(60일)이 각 부모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당되었고 2번째 걸친 개정은 1990년대엔 10%에 불과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13년 25%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스웨덴이 육아휴직의 양성평등한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정책의 개정 목표가 가사와 육아에 있어 양성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의 오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을 막아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이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던 2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

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책이 추구하는 완벽한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스웨덴은 2016년 1월, 다시 한번 정책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60일이었던 각 부모의 육아휴직 필수 할당 기간은 30일이 추가된 90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 개정된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은 기본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부 각각에게 240일씩 제공된 것이지만, 부모 각자가 반드시 써야 하는 90일(각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는 부부끼리 공유하거나 넘겨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Parental benefits' 이라 불리는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Parental benefits'은 일, 구직, 학업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스웨덴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 아이당 480일(부모 각각 240일) 기준으로 제공되며 390일(부모 각각 195일: 이 중 90일은 서로 공유 불가능)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이때 급여의 77.6%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금액 상한선은 하루에 1,006코로나(대략 12만 원)라고 합니다. 나머지 90일(부모 각각 45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인 하루에 180코로나(대략 2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연 117,590코로나 미만(대략 1450만 원)사람, 학생, 구직자의 경우에도 매일 250코로나(대략 4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는 자녀가 8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단위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풀타임, 쓰리 쿼터(75%), 하프 쿼터(50%), 1/4쿼터(25%), 1/8타임(12.5%) 중 하나를 골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그에 맞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당해 육아휴직 사용 전체인구 중 여성은 55%, 남성은 45%로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꾸준히 천천히 남성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는 12%였던 남성 사용률이 2016년에는 27%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정책은 한국과 유사점과 상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사한 부분은 양국 모두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입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개선해왔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현재 대상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인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도 1년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라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2019년 1월부터 적용, 이전은 상한 20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가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 변화에 힘입어 2018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이 17.8%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6.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양국의 육아휴직 정책은 이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상이점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의 범위]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를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스웨덴과 다르게 구직자나 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의 유연성]
자녀가 8세가 되기 전엔 480일 동안 시간 단위까지 선택하여 유연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경우 1년이라는 고정 시간만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 일자 선택이나 시간 단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다 덜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양국 모두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2018년 기준

17.4%)은 스웨덴(2016년 기준 27%)에 비해 낮은 남성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및 사회 분위기, 제도가 개선되면서 남성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육아정책과 한국과의 유사/상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웨덴 육아휴직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의 정책이 조건(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나아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점차 변화하고,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 원하는 일자,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열어둔다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스웨덴처럼 부모 할당제를 함께 운영한다면 남성들의 참여율을 이전보다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 역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편집실을 찾은 독자 사연

매달 초 발행되는 고용노동부 기관지 월간내일을 보는 독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월간내일 2월호를 본 독자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1. 책 뒤편 엽서에 사연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참여방법2. 메일 moel2019@naver.com로 독자 사연과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참여방법3.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월간내일 #고용노동부 #점핑챌린지' 해시태그를 포함한 월간내일 감상 후기, 인증샷을 올리고 링크를 함께 보내주면 당첨확률은 UP! UP!
4월호부터 선정된 사연자에게는 월간내일 굿즈를 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최소희 독자님 FOLLOW

평소 좋아하던 빨강머리N 작가님의 인터뷰가 있어서 반가웠어요~ 늘 속 시원한 작품을 그린 작가분이 궁금했는데, 인터뷰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이용성 독자님 FOLLOW

직장 동료의 권유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로운 정보가 많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백신용어 관련한 기사가 좋았습니다. 덕분에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네요.

이로운 정보가 많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백신용어 관련한 기사가 좋았습니다.

충청시 사능동 김명화 독자님 FOLLOW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TV를 보는 것과 낮잠을 청하는 것이 전부인 저에게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영화 한 편을 알려주어 잠시나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임선아 독자님 FOLLOW

능률한 모습으로 공사현장을 지키는 김세원 경비반장님의 일터이야기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큰 도움을 준 것 같아, 제 주변에도 권해드렸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자격증에 도전하고 더 빛날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가신 김세원님을 응원합니다!

더 빛날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가신 김세원님을 응원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김광명 독자님 FOLLOW

인생설계카드를 보면서 나도 퇴직 후 카드를 신청하면서 인생 설계를 다시 해볼까도 생각해볼 수 있었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김성우 독자님 FOLLOW

고용노동부의 많은 계획과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절망보다는 희망찬 이야기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용노동부의 올해의 계획과 목표가 모두 술술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절망보다는 희망찬 이야기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숨은 정책 단어 찾기 이벤트

국민들의 위라벨을 책임지는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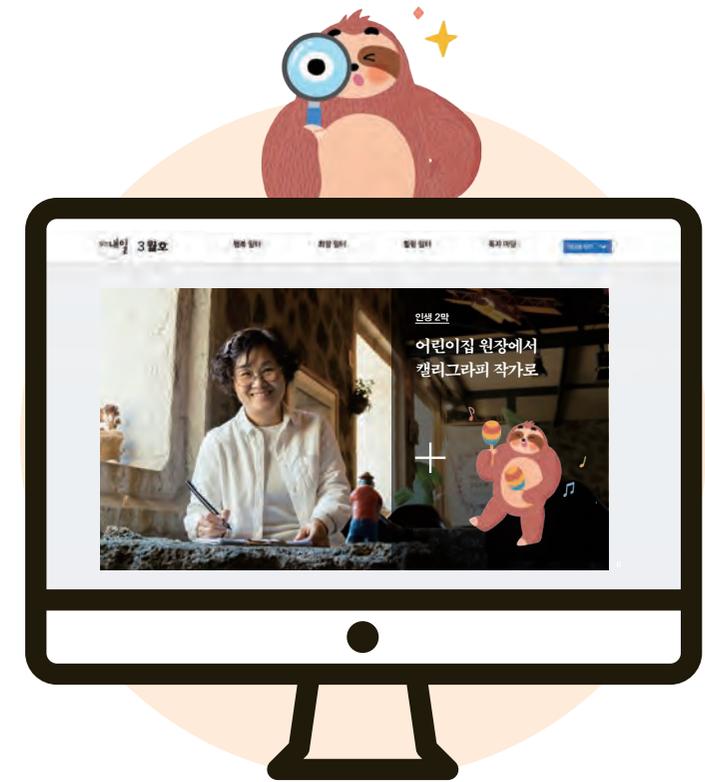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프	리	랜	서	근	무	제	출
이	미	지	주	말	휴	가	근
머	선	1	5	9	3	휴	유
필	수	노	2	대	교	무	연
동	2	4	시	간	편	의	점
자	취	업	간	제	도	료	주
국	민	을	근	로	자	인	노
2	4	영	무	이	영	지	동
워	라	벨	제	도	업	원	지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2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광명 / 임선아 / 오상화 / 이용성 / 제정우 / 박종욱 / 조성준 / 현호철 / 박현희 / 이선미

퀴즈 당첨자 분들께
3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